



Good Morning Everybody

- 04** 인사말씀(김선화 이사/공동종합사회복지관장)
- “사랑을 더하면 마술이 된데요”

Good Morning Family

- 06** 2018 소아암가족 미니운동회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08 2018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 “기린아, 꿈드림의 날개짓으로 꿈을 드리다!”
10 병원이야기 (연세암병원 한정화 간호사)
- “아이들과 나는 함께 자라납니다.”

Good Morning HAPPYBEAN

- 12** 네이버 해피빈을 소개합니다.
- “18,148명의 숨은 천사들”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 14** 후원자 이야기 ① (연세암병원 입원간호사팀)
- 입원 암환자의 24시간을 함께하는 천사들
16 후원자 이야기 ②
- “하늘에 있는 아들이 너의 생일을 축하해”
17 재능기부 이야기 (이승환 이사)
- “어떤 재능이 있으신가요? 나눠주세요.”
18 후원자 이야기 ③ (강동호 마이너갤러리)
- “우리의 음악이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자원봉사자 이야기(삼성생명 임직원)
- 봉사도 후원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Good Morning My House

- 22** 하우스 이용자 이야기 (라이아나 뽀)
-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우스”

Good Morning Hanbit

- 24** 2018 상반기 한빛/후원 NEWS
25 2018 상반기 후원자 명단
26 2018 상반기 결산현황
27 2018 상반기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28 후원안내 및 모집
29 정기후원(CMS) 신청서
30 포토에세이
31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사랑을 더하면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 백혈병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기관입니다. 소아암 환자를 알고 있다면 더 잘 알겠지만 통상적인 치료비 이외에도 숙식비 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가족들의 부담은 치료과정 동안 늘어만 갑니다. 게다가 치료 가능한 병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아이의 치료를 위해 부모들은 지방에서 낯선 서울로 올라와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곧 치료비 이외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아이들은 위생적인 청결이 유지 되지 않는 곳에서 지내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소아암 및 백혈병 환자의 완치를 지원하고자,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자 한빛사랑하우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마음들이 모였고, 어느새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아암 NGO 한빛의 실무자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 사회복지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 지방 거주 환아를 위한 치료지원 시스템은 아직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어떠한 것도 쉬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이 길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또 힘든 시련을 이겨내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제겐 큰 축복입니다.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람을 향한 무한한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사람을 통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마술이 된데요

이들을 돕는 사람들의 정성을 보면서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라는 것을 항상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보아왔던 작은 나눔은 어떤 이에게는 희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따뜻한 위로로 채워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편견도 아픔도 없는 세상. 이는 희망과 꿈이 있는 진정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분들일 것이며, 이들의 아름다운 노력들이 앞으로도 더욱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소아암NGO한빛 이사
궁동중합사회복지관장

김선화



06.

Good Morning
Family

박민지
(소아암원치자/기린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18 소아암가족 미니 운동회)

2018년 5월 19일, 모두가 고대하던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하늘은 우리를 축복 하듯 맑게 개였습니다. 매년 초여름 열리는 한빛사랑회 미니운동회는 현재 치료 받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힘든 치료를 잊고 잠시나마 건강한 아이들처럼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또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년째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기에 설레기도 하고 더욱 조심스러워 졌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대 부속 고등학교에 도착하자 푸르른 하늘과 널찍한 운동장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아이들의 선서와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톰, 제리 두 팀으로 나



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순식간에 웃음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첫번째 게임으로는 판뒤집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며 뒤집기도 하고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힘들 법도 한데 지치는 기색 없이 아이들 모두 열정적이었습니다.

첫 게임을 마치고 나니 금방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바베큐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채소와 반찬으로 배부른 식사를 했습니다. 자유로이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놀다가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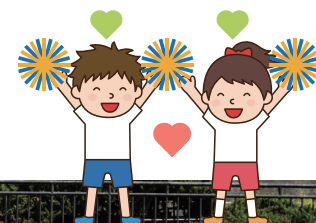
점심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시원한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물총에 물을 가득 받아 뛰어



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봉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맑은 하늘 아래 행복한 웃음만이 넘쳐났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이 끝나고 두번째 게임인 큰 과녁판에 신발을 던져넣는 게임을 했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박 터트리기를 했는데 박이 터지자 그 속에 있던 현수막에서 지렁이 나와 의료진 선생님들의 깜짝 공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함께 박수를 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이 아닌

넓은 운동장에서 환아와 가족들과 뛰어 놀며 하루를 보낸 것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소아암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만났고 그들은 저의 과거였으며 저는 그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중한 하루였습니다. 매번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한빛사랑회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08.

Good Morning
Family

이담희
(소아암원치자/기린아)



기린아, 꿈드림의 날갯짓으로 꿈을 드리다!

(2018 소아암 인식 개선 캠페인)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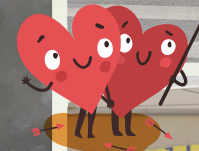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린아와 꿈드림은 우리들의 의미 있는 작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소아청소년암 완치자와 함께하는 희망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다가가도 될까요?”

“소아암은 전염병인가요?”

이처럼 소아청소년암에 대해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료중인 환아와 가족들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소아청소년암은 전염되지 않으며, 유전되는 병

도 아닙니다. 저희 기린아, 꿈드림은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아청소년암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자녀와 함께 오신 가족들,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놀러 온 여러 사람들에게 풍선과 소아암 설명이 담긴 팸플릿을 나눠주며 캠페인에 대한 소개와 전염병 유전병과 같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희망나누기 캠페인 부스에서는 희망 메시지 작성하기, 플로이드와 캘리그래피 이벤트, 기린아가 찍은 사진전시, 직접 만든 책갈피, 인형을 판매하는 모금 활동 그리고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설문지 작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졌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소아암을 이겨내고 있는 환



아들에게 진심이 담긴 희망메시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학생은 스스로 와서 자신도 소아암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쓰고 싶다고 말하면서, 학교에서도 소아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번에는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건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소아암으로 힘든 치료를 받는 친구들에게 응원을 하지 못했던 것에 계속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쉬움을 관심으로 표현해준 그 학생을 보면서, 더운 날씨에 약간 힘이 부치기도 했었지만 보람을 느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기린아의 멤버로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기린아 꿈드림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린아, 꿈을 드리다... 저의 꿈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소아청소년암에 대해 알아주고,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 봐주고, 그 속에서 소아암 친구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우리 소아청소년암 완치자들도 꿈을 꾸고 그 분야의 리더가 되어 누군가에게 꿈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아암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모든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심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암을 직접 경험하고 이겨낸 기린아, 꿈드림의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 주길 바랐던 하루였습니다.

아이들과 나는 함께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지원하게 된 소아과 병동이었습니니다. 그곳에서의 만남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소중한 인연이 되어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암을 처음 진단받거나, 집중치료로 인해 잦은 입원생활을 하는 환자의 부모님께서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완치가 되긴 하나요?”

병동에서 일했을 시절, 저 또한 궁금했습니다. 과연 완치가 되긴 하는 걸까? 아픈 아이들이 계속해서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 검사하면서 항암치료는 수없이 반복되고, 재발되어 다시 입원하기도 하는 반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같아 보였

습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부모님들 마음은 오죽 불안하고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옆에서 소아암 완치자들이 자신의 병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어렵게 치료 받았던 아이들이 완치되어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살도 채 안되었던 꼬꼬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치료 받을 때 졸졸 따라 다니며 “선생님 좋아해요!”라고 고백했던 아이는 어느덧 몰라보게 자라서 수줍은 사춘기 소년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이 되었다며 술 한잔 함께 기울이자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결혼을 한 사랑스런 신부도 있었고 봉어빵 딸을 낳아 육아 삼매정에 빠진 위대한 엄마까지.. 우리 소아암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못해본 역할까지 기특히 해내는 우리 완치자들을 보면 너무 대견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 환자들과 함께 이만큼이나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슴에 담은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튀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까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라는걸...!



클릭으로 그리는 행복한 세상

해피빈



18,148명의 숨은 천사들

“아이 엄마가 되고나니 절절히 알게 됩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은 엄마 마음. 부디 빨리 완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나이에 치료받느라 넘 고생이 많겠어요. 맘이 아프네요. 완치하면 더 좋은 날들이 많을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내길 바라게요!”

“집이 멀어서 병원 치료를 받기 힘들 텐데 이런 시설(한빛사랑하우스)이 있음 참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좋은 일에 보탬이 있어 기쁘네요. 행복하세요^^”

“힘드실텐데 도움이 되셨으면...사랑한단 말 아까지 마시구요 파이팅!”

“아이들이 아프지 않는 세상이... 아프더라도 이겨낼수 있는 힘을 가지길 바랍니다.”

—모금함 댓글 중—



*소아암NGO한빛 해피로그 : <https://happylog.naver.com/hanbitlove.do>
앞으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콩으로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공익 단체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기부포털입니다.

콩이라는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기부 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들이 만든 해피로그라는 블로그를 보면서 해당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기부를 하거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콩 1개는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네이버에서 캐시결재를 통해 구입할 수도 있고, 각종 이벤트 등으로 무료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은 2014년 8월 4일부터 해피빈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8개의 모금함을 통해 18,148명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총 모금액이 195,444,400원이 되었습니다.(2018.07.24. 기준) 해피빈 후원자 대부분은 우리 단체를 몰랐던 네티즌들이었는데 소아암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후원으로 보내주시며 힘껏 응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소아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콩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나보다 소중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심정 헤아릴수도없네요. 봉사로 이겨내시는 어머님들의 용기 존경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2018.01.24 08:22

sylviaa님

힘내세요~ 어려운 병 이기고 살았는데~ 세상은 더 좋은 사람이 많아요~ 멋진어른으로 잘 성장하시길요~!!!

2018.03.22 08:57

올리브님

저 역시 소아암 병동에서 완치판정을 받고 살고 있는 30대 중반입니다. 하지만 그 때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병균이나 병증, 미래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20년 넘은 지금에서야 정신질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리치료도 병행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합니다.

2018.03.22 20:30

zeze님

며칠 전 수술하고 꼬맨 부위가 아파한 제가 암의 고통을 견뎌내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니 한 없이 작아지고 창피합니다. 비록 1000원 콩 10개 밖에 안되지만 한 아이라도 더 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06.21 00:24

o님

혈액암으로 작년 가을 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꽃보다 고운 아이들이 마음편하게 좋은환경에서 치료받아 꿈을 이루지 못한 친구들의 몫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생각하는대로 이루어집니다.

2015.04.22 00:45

숨은천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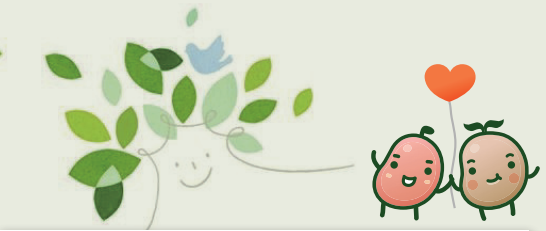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힘이되어주어 감사합니다~

2015.05.09 05:28

숨은천사님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힘을 내다오.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을 내서 일과 공부를 해야겠다. 용감하게 싸워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어떤일을 해야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할지 가르쳐 줘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2015.05.12 10:25



누가 뭐라고해도 난 어디서나 빛나는 천사같은 아이란다 ㅎㅎ

2018.03.30 21:07

perieart님

매우 작은 도움의 손길일지도 모르지만,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_^

2015.06.21 18:23

또치유님

힘내세요. 사랑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2015.06.20 01:02

기쁜하루님

이쁜 아이들... 고통없이 잘 이겨내서 힘차게 뛰놀수있기를 바랍니다.

2015.06.20 22:49

권정미님

너무 작은기부라 부끄럽지만 동참합니다^^ 제가 더 행복해지네요♡

2015.06.22 14:25

은스타그램님



입원 암환자의 24시간을
함께하는 천사들

Q1.

이번 나눔에 참여하신 분
들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암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며 행복하게 소통하는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간호사들입니다.

Q2.

입원간호팀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연세암병원 입원병동은 24시간 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희망, 눈물, 기쁨, 감사함이
있는 공간입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입원 후 검사, 치료, 수술, 항암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간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더 단단해진 가족사랑의 에너지로 밝고 긍정적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Q3.

어떻게 이런 나눔에 참여
하게 되었나요?연세암병원 입원간호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브란스 병원의 미션을 실현
하기 위해 입원간호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쁨 나눔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기쁨 나눔 동호회의 일원으로 장애인 공동체 봉사활동, 선교후원 등으로 감사
와 보람을 느끼며 사랑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나누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힘듦과 어려움, 슬픔과 기쁨을 지켜보면서 좋은 일에 함께 동참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소아암 환자와 가족의 공간인 한빛사랑하
우스를 연세암병원 126병동 선생님들을 통해 알게 되어 작은 손길이지만 큰 행복으로
연결 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Q4.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
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수개월이 걸리는 항암치료 기간에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과 불안이 크겠지만 희
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암의 진행상황도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스를 참 많이 보아 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암 진단 후 더 끈끈하고
단단해진 가족사랑의 에너지로 밝고 긍정적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연세암병원 입원간호팀 '기쁨 나눔 동호회'는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으로
소아암 아이들의 하우스인 한빛하우스에 에어컨 1대와 공기청정기 2대를 후원해 주었습니
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공기를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이 너의 생일을 축하해

“곧 있으면 우리 아들의 생일이예요.

아들녀석이었지만 다정하고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는 효자아들이었지요. 단 한번도 이 아이가 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엄마만 홀로 남겨두고 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생일을 한 달 남겨놓고 뭐가 그리 급해서 떠나갔는지... 미역국을 한번 더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쉬운 일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 아들은 소아암을 이겨내지 못한채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 있으면 다가오는 우리 아들의 생일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는 떠났지만 지금 치료중인 아이들은 꼭 완치됐으면 하는 저희 부부의 소망입니다.”

한번도 본적 없는 낯선 사람인 저에게조차 어머니는 울먹거리며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몇 번이나 대화가 끊기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그 절절한 마음이 가슴이 시리도록 와닿아 함께 왈각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생일을 한 달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의

이름으로 들었던 적금을 고스란히 후원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당부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꼭 우리 아이 이름으로 후원자이름을 써주세요.”

아직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던 그 흐느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차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그 마음이 아직도 내 가슴에 깊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소중한 아이 OO이의 이름이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후원자로서 세상속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름, 귀한 후원이 결코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OO이의 아름답고 찬란했을 미소가 어머니, 아버님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언제나.. 힘내세요.”



어떤 재능이 있으신가요? 나눠주세요.



큰 힘은 보태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빛의 이사로 속해 있지만 사실은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병원관계자 그리고 우리 소아암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봉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능기부와 후원모금 활동을 연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는 '회계' 관련 모임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모임도 하고, 강의도 함께 듣는 사람들이 200여 명 모여 있습니다. 모임을 하면 대개는 무료로 하거나 약간의 회비를 걷는 정도입니다. '회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비는 한빛으로 후원되게 하자!' 사실 약간 무모함도 있었습니다. 회계세미나와 백혈병·소아암 단체 후원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Why Not? 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떤 계기로 만나든, 한빛을 소개하고, 백혈병·소아암 환아에게 필요한 쉼터 사업을 알리자.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 공지를 올리고, 1만 원의 참가비는 한빛 후원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좋은 취지를 아시고, 세미나 장소도 협찬 받을 수 있었습니다.

2회 걸쳐 지난 3월 3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앞에는 한빛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소년 몸으로 하는 봉사도 좋아합니다만,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 봉사로 연결 짓는 게 좋습니다. 영상사진 촬영, 행사 기념사진 촬영, 홈페이지 기획 등 재능기부가 잘만 연결되면 진짜 값어치 있는 봉사입니다. 다만 후원 받는 쪽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둘 사이의 재능기부가 꽃필 수 있습니다.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세상 만들기. 소아암NGO한빛은 이를 위해서 쉼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후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금전적인 후원도 좋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한빛을 알고, 함께했으면 합니다. 백혈병과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세상도 우선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빛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동화작가나 시인이 한빛을 알아서, 소아암·백혈병 가족의 아픔을 아름답게 그려주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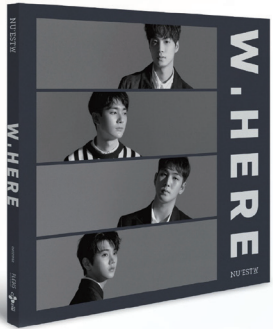


우리의 음악이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아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뉴이스트W의 앨범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4월 소아암가족들의 미니운동회를 앞둔 어느 날 프로듀스101을 통해 더욱 이름을 알린 뉴이스트W의 멤버인 강동호 아티스트의 팬클럽인 강동호 마이너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아암 친구들에게 선물을 통한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총 200장의 앨범이 도착했습니다. 저 또한 프로듀스101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들의 청춘을 불태우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에서 많은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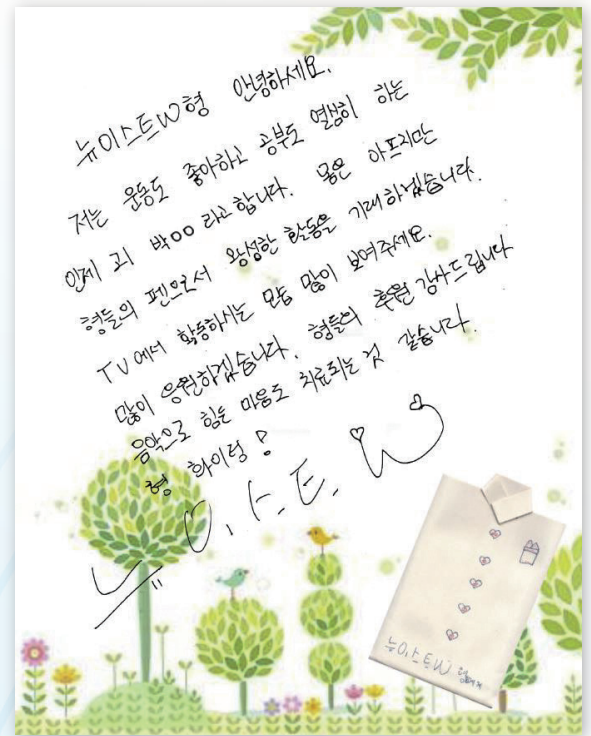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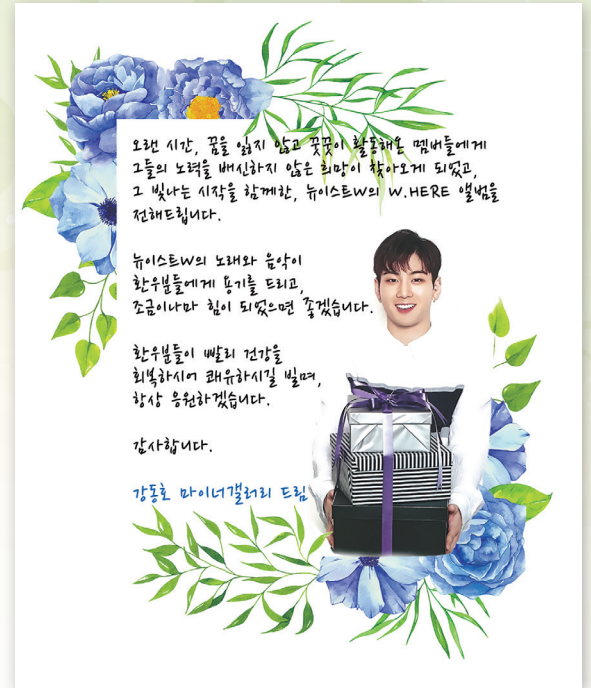


을 받았었습니다.

특히나 인상깊었던 것은 함께 보내준 메시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꿈을 잃지 않고 꿋꿋이 활동해온 멤버들에게 그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은 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뉴이스트W의 노래와 음악이 환우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운동회가 열렸던 지난 5월 19일에 운동장의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서 뉴이스트W의 앨범을 예쁘게 셋팅했습니다. 운동회에 참석한 소아암아이들과 가족들은 뉴이스트W의 이름을 알아보고 모두 감격해하며 CD를 하나씩 가방에 소중히 넣어 가져갔습니다. 즐거운 행사와 함께 행복한 선물도 안고 돌아갈 수 있었던 행복을 선물해준 강동호 마이너갤러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처음과 같은 열정과 마음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뉴이스트W와 또 한명의 뉴이스트멤버인 황민현아티스트에게도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늘 멋진 음악 기대합니다!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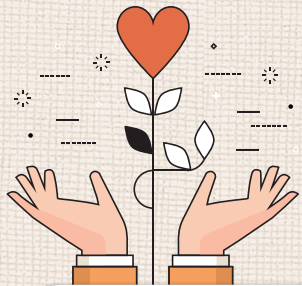


봉사도 후원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성생명은 한빛사랑하우스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고마운 서포터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매달 2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매달마다 하우스에 필요한 물품을 지정해서 요청하면 그에 해당되는 물품을 매번 구입하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텐데도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반기에만 벌써 2번이나 하우스를 위한 자원봉사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우스의 화단을 정리하고 방안을 깨끗이하게 쓸고 닦으며 구슬땀을 흘려준 봉사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오셨지만 2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뭐 더 할거 없나요?”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일감(?)을 찾아나섰던 삼성생명 임직원 봉사자 여러분. 오셔서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깊이와 닿았습니다. 하우스를 생각해 주시는 그 귀한 마음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우스



2016년 말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4살이었던 둘째 딸이 조국 카자흐스탄에서 신장암 4기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남편과 상의한 뒤 우리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의술이 잘 발달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완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의사들은 완치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울의 어떤 병원으로 갈지 오랫동안 알아본 뒤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분들이 이 병원을 추천해줬기에 이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떠나면서 타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그쪽 사람들은 어떨까? 등 많은 궁금증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고, 치료 기간이 길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숙소는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우리를 담당해주었던 코디네이터 덕분에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바로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병원까지 같이 동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날 우리 아이를 치료하기로 해주신 유철주 교수님의 진료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어서 너무 놀랐고 고맙습니다.

한국에 오고나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이 넘치고 착한지 알게 되었고, 마음에 안심도 되어 완전히 신뢰하고 치료를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도착한 날 바로 한빛사랑하우스를 추천 받았는데,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편안한 숙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숙소가 어떨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저희 가족을 한빛사랑하우스에 데려다줬고, 이 숙소를 딱 보자마자 소아암 환아들과 부모들을 위한 곳이란 걸 느꼈고, 또 한 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곳은 방이 5개가 있는 2층 건물이었고, 우리는 1층에 있는 방을 골랐습니다. 각 방에 모두 TV가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덕분에 아픈 아이들이 만화를 볼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든 치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집이었지만 꼭 내 집인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집에는 작은 마당과 예쁜 나무도 있고, 모든 문이 자동잠금장치가 되어있어 개인 물건을 두어도 없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서安心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빛사랑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많은 식당, 가게,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나서 저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한빛사랑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치료 받는 동안 내 집처럼 적응을 했던 터라 치료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에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치료기간 중 지내는 집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저희를 항상 이해해 주시는 권사님 덕분에 하우스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의 한국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완치되어 고국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은 추억이 되겠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2018 상반기 한빛/후원 NEWS

2017 교직원 성탄축하
예배 헌금 후원

연세의료원 원목실에서
는 2017년 교직원 성탄
축하예배때 모아진 헌금
3,644,273원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하우스인 한빛사랑
후원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린아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5월 5일(토) 신초 연세로
차없는 거리에서 기린아
(소아암 완치자 성인모임)

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는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겪
은 소아암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을
바로 잡으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8 소아암가족
미니운동회

5월 19일(토) 이화여자대
학교 부속 고등학교에 소
아암 가족, 자원봉사자

등 130여명이 모였습니다. 판뒤집기, 박터트리기, 바베쿠
파티 등 탁 트인 넓은 운동장에서 소아암아이들과 가족
들이 마음껏 뛰어논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인사

소아암NGO한빛에서 그동안 수고하신 김진영 간사님이 퇴사(2018. 1. 31) 하시고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시실 한상원 간사
님께서 새로 입사(2018.02.01.)하셨습니다.

서대문구청장
한빛하우스 방문

1월 8일(월) 한빛사랑하우스를 격려하
기 위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및 부
인,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
팀, 여성정책과 등 구청과 주민센터
임직원들 20여명이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발한 지원을
약속하며 오랜시간 소아암환아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
어준 우리 하우스를 위한 아낌없는 격려 감사드립니다.

삼성생명
사랑하우스 봉사

2013년부터 매월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주
고 있는 삼성생명에서 임

원을 포함한 임직원 10여명이 4월과 6월에 사랑하우스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마당정리, 화장실청소, 선풍기 닦기 등
가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에 임해주신 여러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 후원 신규 단체

- ① 서울중앙교회 : 교회 운영 카페 수익금 중 매월 10만원 정기후원
- ② (주)제이제이무역 : 매월 10만원 정기후원
- ③ (주)예림씨앤피 : 매월 10만원 정기후원

후원회원

(2018년 1월~6월 후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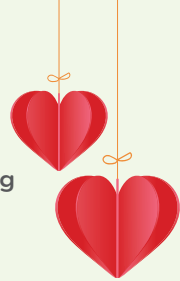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순호, 김은채, 목미수, 박선미, 박정순, 배정임, 변미라, 오미영, 이선희, 이수진, 이희경, 조미영, 조은희,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구본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두진, 김민지, 김선정, 김영숙, 김영은, 김영희, 김유민, 김은경, 김은수, 김재훈, 김종수, 김주희, 김지선, 김진국(배봉선), 김진아, 김춘희, 김충선, 김해용, 김현이, 김현정, 김혜숙, 김혜연, 김혜진, 김희진, 나수연, 류석현, 모민희, 목현희, 문경순, 문숙희, 박경자, 박금분, 박미나, 박선정, 박선희, 박영란, 박옥선, 박우석, 박은선, 박은재, 박정선, 박진배, 박태선, 방 사무엘 연상, 방인숙, 배길선, 백기범, 백윤수, 백일영, 변은숙, 서연자, 서진근, 석미영, 성세희, 성정숙, 손유진, 송기원, 송미란, 송수경, 송현주, 심소정, 안상민, 양재승, 오한나, 우남칠, 원호성, 유경화, 유기성, 유성호, 유연숙, 유주영, 윤성현, 윤순애, 윤옥진, 이갑우(이종엽), 이경재, 이광환, 이규강, 이규현, 이다영, 이승환, 이영희, 이영희, 이은우(이종엽), 이은정, 이인숙, 이정숙, 이정순, 이종숙, 이종호, 이주현, 이진호, 이철수, 인수진, 장문수, 장수영, 정규성, 조길수, 조미영, 조형희, 지명희, 최문근, 최병숙, 최상민, 한경미, 현승준, 현창룡, 홍충란, 황은화, 황인희, 황정원, 황한별
2만원	강유미, 고형길, 김나원, 김미숙, 김미희, 김선화, 김수경, 김수현, 김영자, 김예나, 김왕배, 김인기, 김재실, 김종옥, 김지영, 김진희, 김현숙, 김현정,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윤성, 대한신한, 박은영, 박현아, 박현우, 박희옥, 배석진, 서연제(서정희), 석윤희, 송민정, 양혜란, 유기옥, 윤수한, 윤정애, 은종선, 이난향, 이동구, 이명순, 이배환, 이상호, 이유미, 이윤선, 이지순, 이진희, 이현빈, 임재순, 임지선, 장미경, 장은조, 장진희, 정광호, 정윤환, 장인호, 조달남, 최영애, 최인경, 하미경, 한수영, 한재원, 한정화, 현도윤, 홍영숙
3만원	고애란, 기초자, 김경숙, 김경희, 김광재(최은희), 김금주, 김현진, 김홍익, 민주원, 박성희, 박유선, 박홍이, 배서준(강진희), 변병숙, 송시원, 유재덕, 이승순, 이정원, 최병철, 최수영
5만원	강창무, 김도연, 김선희, 김성숙, 김은아, 동아스지, 등촌교회 사랑 1,2,4전도회, 등촌교회 안나1,2,4전도회, 신윤정, 신현주, 윤공심, 이기조, 이현영, 창천교회 나옴나선교회, 창천교회 병원선교회
10만원	강명선, 권승연, 김영준, 박승원, 이지은, 장준영, 조현우, ㈜예림씨앤피, ㈜제이제이무역, 산돌교회, 서울중앙교회, 한국예수님의아이들(COJ), 기쁜소식교회
15만원	정만희
20만원	김성경, 문현철, 박송희, 이지은
25만원	배길선
40만원	청아장학재단
50만원	배명자, 이은주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2. 일시후원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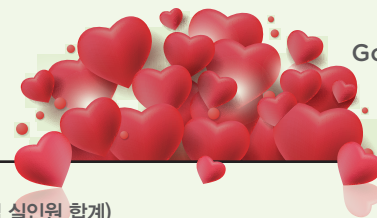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10,000	김나별, 남건우, 박조아, 복정선, 손엄지, 안소연, 임승재, 조호윤, 최윤신	100,000	김미정, 신효명(신준배), 어세준(주하음) 이상호, 이승현(이상옥)	3,000,000	장준영
20,000	김기자, 김나은, 박효선, 이상정	300,000	박홍식	3,644,273	연세의료원
30,000	정현근, 정혜지, 최승관	306,488	기린아(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10,000,000	안대권
40,000	추다은	1,000,000	창천교회 병원선교회		
50,000	신희진	1,285,000	서울중앙교회		



2018년 한빛사랑후원회 사업수지 결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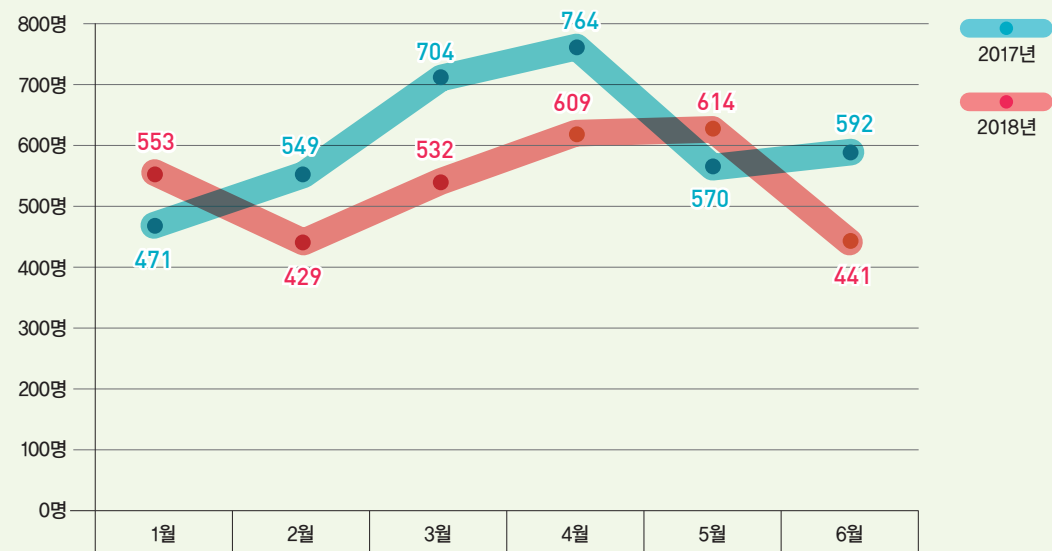
(2018.01.01~2018.06.30)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세입		세출	
1. 전년 이월금	106,830,482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전년이월금 소계	106,830,482	1) 인건비	
2. 후원금 수입		1-1) 급여 및 수당	24,246,220
1) 정기후원		1-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641,700
1-1) CMS후원	28,494,505	1-3) 사회보험부담금 및 지방세	2,745,330
1-2) 개인 계좌이체 후원	8,490,000	1-1) 인건비 소계	29,633,250
1-3) 단체 계좌이체 후원	9,090,000	2) 운영비	
2-1) 정기후원 소계	46,074,505	2-1) 차량관리 및 유지비	1,405,350
2) 특별후원		2-2) 물품구입비	181,110
2-1) 하우스 이용자 후원	25,129,828	2-3) 여비교통비	46,500
2-2) 해피빈	28,583,900	2-4) 수용비 및 수수료 (우편택배, 주차 등)	1,142,910
2-2) 특별후원 소계	53,713,728	2-5) 기타 운영비	245,400
3) 지정후원		1-2) 운영비 소계	3,021,270
3-1) 소아암환아 치료비후원	0	3) 홍보	3,310,931
2-3) 지정후원 소계	0	4) 자원 개발 및 관리	437,276
4) 비지정후원(개인)	14,290,000	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	36,402,727
5) 비지정후원(단체,기업,재단)	5,735,761	2. 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센터)	
후원금 소계	119,813,994	1) 공동운영비	
3. 잡수입		1-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17,960,267
1) 이자수입	35,591	1-2) 정수기렌탈요금	685,800
2) 기타잡수입	974,010	2-1) 공동운영비 소계	18,646,067
잡수입 소계	1,009,601	2)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세입합계	227,654,077	2-1) 가스요금	3,428,580
		2-2) 방송수신요금	157,040
		2-3) 방역요금	720,000
		2-4) 전기요금	1,488,030
		2-5) 수도요금	845,120
		2-6) 인터넷 및 전화요금	356,160
		2-7) 시설개보수비	0
		2-8) 재산세	0
		2-2) 한빛하우스(창천동) 소계	6,994,930
		3)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3-1) 가스요금	1,957,310
		3-2) 방송수신요금	282,790
		3-3) 방역요금	636,000
		3-4) 전기요금	529,750
		3-5) 수도요금	318,000
		3-6) 인터넷요금	124,140
		3-7) 시설개보수비	0
		3-8) 재산세	0
		2-3) 사랑하우스(연희동) 소계	3,847,990
		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	29,488,987
		3. 재산조성비 (사랑하우스 매입)	
		1) 사랑하우스 대출금 상환	48,375,701
		재정조성비 (사랑하우스 매입) 소계	48,375,701
		4. 치료비지원사업	
		치료비지원사업 소계	1,000,000
		5.소아암환아지원사업	
		1) 완치자지원사업(기린아&꿈드림)	804,520
		2)소아암가족지원사업*	5,056,760
		소아암환아지원사업 소계	5,861,280
		6. 잡지출	0
		잡지출 소계	0
		세출합계	121,128,695
잔액			106,525,382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1. 2018년 상반기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환아	260	187	200	225	239	186	1,297명
보호자	293	242	332	384	375	255	1,881명
합계	553	429	532	609	614	441	3,178명

2. 2018 상반기 한빛사랑하우스 후원물품 내역

1월	본죽(상품권50장, 본죽50개, 쌀40kg, 김치40kg, 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주방세제, 피죤, 소아암재단(쌀20kg), 서대문구청(청소도구, 학습용품책, 주방세제, 핸드크림), 연희동주민센터(쌀40kg), 이빛나(쌀40kg)
2월	본죽(상품권50장, 본죽50개, 쌀40kg, 김치40kg, 치킨1box), 삼성생명(키친타올, 주방세제, 옥시크린리퀴드), 소아암재단(쌀20kg), 심호식(굴1box), 윤환용(수제비누 200개), 연희동주민센터(쌀20kg 10포),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삼푸50개, 치약66개), 현도윤/현도경(인형20개), 이빛나(쌀40kg)
3월	본죽(상품권50장, 본죽50개, 쌀40kg, 김치40kg, 치킨1box), 삼성생명(참깨, 간독두, 참쌀), 소아암재단(쌀20kg 10포), 이빛나(쌀40kg)
4월	본죽(상품권50장, 본죽50개, 쌀40kg, 김치40kg, 치킨1box), 삼성생명(주방세제, 옥시크린 액체형, 유한락스), 소아암재단(쌀20kg), 이빛나(쌀40kg)
5월	본죽(상품권50장, 본죽50개, 쌀40kg, 김치40kg, 치킨1box), 삼성생명(다우니퍼품, 유한락스-도마행주용, 주방청소용, 욕실청소용), 소아암재단(쌀20kg), 양혜원(한라봉1box), 연세암병원 입원간호팀 기쁨나눔회(벽걸이에어컨1대, 공기청정기2대), 이빛나(쌀40kg)
6월	본죽(상품권50장, 본죽50개, 쌀40kg, 김치40kg, 치킨1box), 삼성생명(퍼실세제, 휴지, 키친타올, 주방세제), 소아암재단(쌀20kg), 박상현(김부각1box), 이빛나(쌀40kg)

정기후원(CMS) 신청서

■ 회원 정보

회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후원 방법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	------------------------------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2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샤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30.

Good Morning
Hanbit

포토에세이

오래되서 더 소중한 추억



〈2000년 여름캠프의 마지막날 캠프파이어 모습〉

뜨거운 여름.

우리가 함께 보낸 “별이 빛나는 밤에~★”

1999년 소아암 아이들 부모님의 자조모임인 한빛사랑회는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빛사랑회 여름캠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름캠프가 올해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캠프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30주년, 40주년도 기대합니다.

